



노승락 홍천군수
▲1951년 5월15일생 ▲홍천농업고교~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강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홍천군 홍천읍 읍장~홍천군청 기획 감사실장~제42대 홍천군 군수(2014.7~) ▲삼지대 겸임교수, 홍천군 테니스협회장

“홍천을 배구의 메카로!” 노승락 군수의 꿈

KOVO와 손잡고 유소년 클럽 배구대회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 더불어 저변 확대에도 도움 유소년배구 활성화 위해 지속적인 후원 계획

강원도 홍천은 고요한 소읍(小邑)이 아니다.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역동적인 지자체다. 농업에 그치지 않고, 스포츠 산업의 가치에 눈을 뜨고 있다. 특히 배구 콘텐츠를 지역에 연계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약 2주 전 현대캐피탈의 캠프를 유치한데 이어, 15일부터 19일까지 한국 배구연맹(KOVO)과 손잡고 '2017 홍천 전국 유소년 클럽 배구대회'를 개최 중이다. 외지에서 선수들만 1200여 명이 홍천을 찾았다. 학부모 등을 합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이런 유행성이 홍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홍천의 변화를 전면에 지원하고 있는 노승락 홍천군수를 15일 만났다.

-홍천에서 유소년 배구 대회를 개최한 계기는?

“홍천군은 9회째 무궁화배 배구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100여 팀이 홍천을 찾는다. 홍천을 알리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전국 유소년 클럽 배구대회'를 통해 홍천이 배구의 메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홍천은 그럴 수 있는 조건들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대회 현장에서 보니까 어떤가?
“어린이들이라 못할 줄 알았는데 재치가 있더라. 스파이크도 잘하더라. (웃음)”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불거리 차원이다. 주민 반응이 아주 좋다. 유소년, 배구 동호인들을 위한 대회 개최를 통해 배구의 저변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홍천에는 남산초등학교 배구부가 활약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대회를 통해 유소년 배구의 활성화를 돕고,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자 한다. (15일 오후 노승락 홍천군수와 조원대 KOVO 총재는 유소년 클럽 배구대회의 홍천 장기 개최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구상은 언제부터 시작했나?
“군수 취임부터 생각 많이 했다. 2배 이상 대회를 늘렸다. 봉급도 못 올려주는데 쉬는 날도 없어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스포츠 메카가 되기 위해 홍천이 지난 경쟁력을 말해 달라.
“홍천에는 대명리조트도 있고, 펜션이 많다. 숙박업소가 많은데 스포츠 대회를 통해 고객을 창출할 수 있다. 또 체육시설이 집약되어 있다. 넓은 면적에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이 많다. 강원도라면 먼 느낌인데 서울에서 1시간 거리다.”

-일찍 일어났다고 들었다.
“습관이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지역을 한 바퀴 둘러본다. 혼자 자전거 타고 다닐 때가 많다. 어제도 퇴근 후 밤 8시에 혼자 테니스 치러 왔다. 주변에서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한다. (웃음)”

-현장을 중시하는 것 같다.
“일자리, 소득, 현장, 이 3가지 중심 행정을 지향한다. 모든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구 7만 홍천의 미래 계획은?
“홍천에 신도시, 관광도시를 만들어서 서울 사람들이 쉬고, 놀다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 수도권 배후의 전원도시, 휴양도시를 기획 중이다. 홍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동네를 가만만 이상인 외지에서 온 사람이다.”

-홍천 맥주축제에 외국인들까지 온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 맥주축제는 내 생각이 많이 반영됐다. 홍천군에서 계장으로 일했을 때, 하이트 맥주 공장을 유치했다. 강원도 다른 곳에 세우려던 공장이 홍천에 왔다.”

-좋아하는 배구팀 혹은 배구선수가 있나?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를 좋아한다. 현대캐피탈이 홍천에서 전지훈련을 연 고마움도 있지만 홍천 남산초등학교 여자배구팀과의 약속(홍천에 캠프를 열고, 1일 레슨을 개최)을 지켜준 것에 대해 더욱 좋은 감정을 가졌다. 좋아하는 선수는 문성민이다. 외모와 실력을 겸비했고, 스파이크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홍천 |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마흔일곱 최무배의 투혼 “감동이었어”

열일곱 어린 제이크 훈 상대로 0-3 판정패 최무배 “기죽은 아재들 위해 끝까지 승부” 4연승 좌절 이예지 “더 성장하겠다” 다짐



ROAD FC 8월 12일 원주에서 펼쳐졌던 XIAOMI ROAD FC 041이 뜨거운 열기 속에 종료됐다. Dangerous 명현만(32, 팀강남/압구정집)과 Huggy Bear 크리스 바넷(31, 바넷 태권도 아카데미)의 재대결, 여고생 파이터 이예지(18, 팀 제이)의 4연승 도전, 아재 최무배(47, 최무배집)의 투혼까지 다양한 스토리의 경기들이 펼쳐졌다.

다. 하위 포지션에서 빠져나와 상황을 바꾸기도 했지만, 2라운드의 분위기를 뒤집기에는 부족했다.

결국 판정 끝에 졌다. 눈물을 쏟았다. 이예지는 “4연승의 부담과 욕심이 과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에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 타격에 비중을 두다보니 내가 잘하는 그라운드 신경을 많이 못했다. 이번 경기 이후로 더 열심히 연습해서 큰 선수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예지는 성장하는 중이다. 패했다고 고개 숙일 필요가 없다. 이번 패배가 오히려 더 큰 선수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감동을 준 아재 최무배의 투혼

운동선수들의 전성기는 보통 30대 초반까지이다. 그 이상으로 나이가 올라가면 신체 능력이 저하된다. 당연히 전성기에서도 내려온다. 그래서 40대에도 선수생활을 이어가는 건 극히 드물다. 40대 후반의 ‘아재 파이터’ 최무배가 12일 케이지 위에 올랐다. 이미 전성기에서 내려온 제한급 지난 파이터다. 모두들 은퇴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여전히 도전을 멈추지 않고 전전터에 몸을 던졌다.

최무배의 상대는 미국의 제이크 훈. 최무배보다 무려 열일곱 살이나 젊다. 경기에서도 우세는 제이크 훈의 몫이었다. 스피드에서 앞서 빠른 타격으로 최무배에게 데미지를 줬다. 펀치는 물론 킥으로 최무배가 거리를 좁히지 못하게 했다. 결국 최무배는 판정 결과 0-3으로 졌다.

경기가 끝나고 최무배는 박수를 받았다. 상대의 타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최무배는 “승패는 중요하지 않았다. 젊은 선수에게 맞아서 코피가 나더라도 3라운드까지 버텼다. 기죽은 아재들을 위해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 여고생 파이터 이예지, 4연승 좌절 후 눈물의 다짐

19세 여고생 이예지도 케이지로 올랐다. 그라운드 기술 위주로 싸우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다. 일본의 마에사와 토모모 상대로 타격전을 벌이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케이지를 넓게 쓰면서 공격해 상대를 혼란에 빠지게 했다. 1라운드에서 자신이 준비한 것을 모두 보여줬다. 2라운드에서는 상대에게 밀렸다. 잠정인 그라운드 기술에서 열세를 보이며 완전히 분위기를 내줬

● Dangerous 명현만, 화끈한 KO승 크리스 바넷에게 감사한 마음 전해

명현만이 화끈한 승리를 신고했다. 자신의 장점인 타격으로 크리스 바넷을 꺾었다. 명현만의 목격한 펀치에 크리스 바넷은 정신을 잃은 채 앞으로 쓰러졌다. 두 사람의 경기는 이번이 2번째였다.

1차전은 크리스 바넷의 눈 부상으로 예상치 못하게 끝났다. 명현만이 승리했지만, 개운하지 않았다. 크리스 바넷도 부상으로 끝까지 싸워보지 못해 아쉬워했다. 결국 두 파이터는 다시 맞붙었다. 1차전보다 준비도 더 많이 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 아오르까리에게 의도하지 않은 국부타격(로블로)으로 경기를 무효로 만든 명현만은 신경을 더 썼다.

그러나 이번에도 로블로가 나왔다. 명현만이 나기를 시도하던 중 크리스 바넷의 중요 부위를 강타했다. 의도치 않은 사고였어도 명현만이 두 경기 연속 로블로를 저질러 난감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크리스 바넷은 경기를 감행했다. 그리고 난타전을 벌여 명현만의 펀치를 맞고 쓰러졌다. 로블로로 인해 승자와 패자가 갈려 또 다시 아쉬움을 남긴 승부였다.

최현길 전문기자 choing2@donga.com



배상문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프로골퍼 배상문이 1년 9개월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했다. 2015년 11월 현역병으로 입대했던 배상문은 16일 강원도 원주 육군 36사단 앞에서 전역식을 치렀다. 시원섭실함과 함께 앞으로의 각오를 함께 밝힌 배상문은 KPGA 코리아 투어 신한동해오픈을 통해 복귀전에 나선다. 사진제공 | 올댓스포츠

대학농구 챌린지 2승2패...하계 U대회 '예방주사'

한국남자농구 유니버시아드대표팀이 안방에서 따끔한 예방주사를 맞았다. 한국은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7 아시아-퍼시픽 대학농구 챌린지에서 초반 고전 끝에 대회를 2승2패로 마무리했다.

최종성적을 떠나 8월 20일 대만에서 열리는 2017하계유니버시아드를 앞두고 면역력을 높이는 예방주사를 처방받았다는 평가다.

● 출발부터 빠격, 간신히 명예회복

한국은 전체 선수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순탄치 않았다. 주축선수들의 잇따른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우선 가드 천기범(상성)과 포워드 안영준, 김진용(이상 연세대)이 소집도 하기 전에 부상으로 빠졌다. 이 자리를 박지훈(kt), 박찬호(경희대), 박진철(중앙대)이 메우자마자 이번엔 센터 박인태(LG)가 발목 부상으로 이탈했다. 결국 한희원(KGC인삼공사)을 대체 선발한 끝에 정

상전력을 가동할 수 있었다.

7월 31일 소집된 선수단은 KOC와 KGC인삼공사, 남자농구대표팀, 전자랜드 등과 연습경기를 치르며 손발을 맞춘 뒤 대학농구 챌린지에 나섰다. 한국은 2014년 초대 대회를 시작으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준우승을 거둔 터라 최소 결승진출을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투쟁을 벌여본 결과, 어느 하나 만만한 팀이 없었다. 이번에 출전한 러시아와 일본, 필리핀, 대만 모두 수준 높은 전력을 자랑했다. 특히 대학선수와 프로 유망주 소속의 유망주들이 합을 맞춘 러시아는 높이의 우위를 앞세워 이번 대회를 사실상 평정했다. 일본 역시 최근의 성장세를 증명하듯 탄탄한 전력을 선보였다. 반면 한국은 다소 실망스러운 경기력 속에 러시아와 일본에 잇달아 쓴맛을 봤다.

● 믿을 구석은 하나, 물오른 강상재

그러나 다행스러운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선수들의 손발이 하나둘 맞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회 초반만 하더라도 패스 연결 등에서 매패질 못한 장면이 많았지만, 마지막 2경기였던 필리핀~대만전에선 향상된 조직력으로 2연패 뒤 2연승을 챙길 수 있었다. 또 하나의 믿을 구석은 주득점원 임무를 맡은 강상재(전자랜드)의 물오른 경기감각이다. 강상재는 대회 내내 날렵한 움직임으로 공수를 책임졌다. 명예회복이 달린 대만전에선 30점·9리바운드로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이번 유니버시아드가 마지막 대학무대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한국이 유니버시아드 조별예선에서 맞붙는 팀은 총 5개국이다. 8월 20일 멕시코전을 시작으로 세르비아(21일), 헝가리(22일), 대만(24일), 라트비아(25일)·이상 한국시각)와 본선행을 놓고 다툰다. 지휘봉을 잡은 양형석 감독은 “대만을 제외하면 네 나라 모두 높이에서 감정이 있는 팀이다. 남은 기간 벤치차원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고평준 기자 shutou@donga.com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 우리에게 맡겨라”

스포츠7330봉사단 4기 발대식·사전교육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14일 서울 방이동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7330봉사단 4기 발대식을 열고 2박3일간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스포츠7330봉사단 4기는 지난 7월 공개모집을 통해 대학생, 동호인 등 총 200명을 선발했

다. 발대식에는 수영 최원희, 씨름 이태현, 핸드볼 임오경 등 전 국가대표 선수와 평소 생활체육과 봉사를 실천하는 배우 현석이 참석해 봉사단을 격려했다. 은퇴선수들의 재능 나눔과 교육을 위해 결성된 한국스포츠교육 희망나눔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광원)도 4기 봉사단과 함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임오경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회 사무총장은 선수회 합창단과 발대식에 참석해 ‘평창의 꿈’, ‘마이 히어로’ 등 합창 공연을

선보이며 스포츠7330봉사단 4기의 선발과 활동시작을 축하했다. 스포츠7330봉사단으로 활동한 지 3년차를 맞은 현옥순씨는 “그동안 활동을 되짚어 보았을 때 타 활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보람과 감동을 느꼈다”며 “특히 올리는 어른신 체육활동 지원을 보다 활발하게 펼쳐, 많은 어른들이 스포츠7330 캠페인을 실천하며 더욱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봉사활동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발대식을 마친 스포츠7330봉사단 4기는 앞으로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2박 3일간 사전교육을 받았다. 봉사 우수사례 발표, 팀 빌딩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한편 봉사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올바른 봉사활동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소양교육과 스포츠 안전교육, 향후 봉사 계획 수립 및 실습교육도 실시했다. 대한체육회는 4기 봉사단을 전국적으로 배치해 전·현직 선수들의 재능나눔, 대한체육회 각종 대회 및 행사지원 활동, 체육과 문화예술을 융합한 자원봉사 활동, 생활체육 정책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2월에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붐 조성을 위한 활동도 추진한다. 양형호 기자 fanbi@donga.com

평창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14일 서울 방이동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7330 봉사단 4기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이기흥 대한체육회 정(왼쪽에서 3번째) 역시 참석해 새로운 시작을 함께 했다. 사진제공 | 대한체육회